



광주여대, 교수 대상 리빙랩 워크숍 성료

광주여자대학교가 리빙랩 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 대상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지난 8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도심 캠퍼스 리빙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리빙랩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방향을 교원들과 공유하고, 타 대학 사례를 통해 학과 단위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재민 전주대학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리빙랩의 이해와 설계’를 주제로 리빙랩의 개념, 도입 배경,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현재 추진 중인 4개 리빙랩 프로젝트의 개요와 향후 운영 계획을 소개하며 교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개발 포럼 성료

전라남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개발 포럼’을 지난 9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했다. (사진)

이날 포럼은 소상공인, 전남도의회,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개발 원탁토론회, 전남 소상공인 청년위원회 발대식,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초청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선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남도와 협력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은행,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기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는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전달식에서 광주은행은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에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상재 광주은행 부행장, 이연 조직위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을 위한 상호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다. 조직위는 이번 기부금을 대회 기간 중 열리는 문화예술행사 운영과 양궁 기술 저개발국가 지원 사업 등 대회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대회 개최까지 남은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광주가 세계 양궁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전남교육청, 생활수영 실기 직무연수 실시

전라남도 교육청이 생존수영을 넘는 생활수영 교육 확대에 나서며 교원과 스포츠지도사를 대상으로 실기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사진)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과 12일 화순오성초등학교에서 ‘2025 전남 생활수영 실기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초등학교원과 스포츠지도사 19명의 생존수영 지도역량을 높이기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연수에는 (사)한국안전수영협회 강사진이 참여해 ‘앞새뜨기’ 등 실전 중심의 생존기술부터 수영 수업 구성과 지도법, 이론까지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SSAK 실전 드릴’과 수업 적용 가이드를 활용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안 작성을 도왔다.

연수 이수자에게는 ‘앞새뜨기 생존수영 지도자’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도교육청의 핵심강사로 위촉된다.

노병하 기자



동신대, 장애인 수중 재활운동 프로그램

동신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응급구조학과가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수중 재활운동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10일 동신대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의 ‘찾아가는 학습 부름’ 강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동신대 물리치료학과와 응급구조학과 학생 10여명이 최근 나주시 관내 장애아동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중 재활운동을 지원했다. 학생들은 물의 부력 원리와 인체의 회전 논리를 바탕으로 한 할리윅 기법(Hallwick method)을 적용해 장애아동의 몸통 안정성 향상과 균형 회복에 중점을 두며 수중 재활운동을 진행했다. 특히, 응급구조학과에서 수상인명구조를 전공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호응을 얻었다.

노병하 기자



광주 북부소방, 온열질환 예방수칙 교육

광주 북부소방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이날 오전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매수토지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요령,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교육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으로는 △기온 등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기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 자제 △현기증·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있을 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 및 휴식 취하기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등이 있다.

고경자 북부소방 교육홍보팀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승우 기자



조선대, 세계학술대회서 ‘수화노래’ 연구 성과 발표

AI시대 인문융합 연구 성과 공유 농문화 기반 수화노래 가능성 제시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가 ‘수화노래의 문화적 위치’를 주제로 한 연구 성과를 세계 인문사회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사진)

10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25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에 참가해 언어융합연구소 이윤희 연구교수는 ‘수화노래의 문화적 위치에 대한 논의: 수화노래는 농문화(Deaf Culture)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수화노래가 농문화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음성언어를 시각언어로 재구성하는 문화적 시도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윤희 교수는 수화노래가 농문화 내 자율적 예술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학문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 주최로 180여개 연구소가 참여해 ‘AI 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열렸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물론 예술·체육·과학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학제 간 융합이 활발히 논의됐다.

최영주 언어융합연구소장은 “국내외 연구자들과 수어·농문화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연구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융합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향후 해외 수어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국제 교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지역 인재 성장 뜻깊은 응원 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윤진호 (사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빙모상 조의금 1000만원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조문에 함께해 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 사회에 다시 돌려주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졌다.

윤 실장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탁한 장학금이 전남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탁금을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도록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장은 “애도의 뜻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으로 전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진호 실장은 지난달 17일에도 빙모상 조의금 1000만원을 보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오지현 기자

GIST, 에어로졸 분석 기술로 ‘안강호어워드’ 대상

환경·에너지공학과 박기홍 교수 연구팀

비실시간 한계 넘은 창의적 성과 대기질·보건정책 기여 기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박기홍 교수 연구팀이 에어로졸 성분의 실시간 분석 기술을 개발해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로부터 ‘안강호어워드 대상’을 수상했다.

10일 GIST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2025년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뤄졌으며, 박 교수팀의 논문은 탄소성 에어로졸의 원소 성분비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기존의 고가 장비나 분석 시간의 한계를 극복한 연구로 평가받았다.

‘안강호어워드’는 입자 및 에어로졸 분야에서 뛰어난 논문에 수여되는 상으로, 한양대 안강호 명예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박기홍 교수



김기백 박사졸업생

해당 기술은 실내외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생성 원인과 배출 경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 대기 질 관리와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교수는 “국내 에어로졸 측정 기술의 세계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7월3일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노병하 기자